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에티오피아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2021년 9월 24일 | 책임연구원 김경하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104천 km ² 	인구 98.73백만 명 (2021 ^f) 	정치체제 연방제 내각책임제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추구 
GDP 939.66억 달러 (2021 ^f) 	1인당GDP 951.76 달러 (2021 ^f) 	통화단위 Birr 	환율(U\$기준) 43.39 (2021) 

- 아프리카 대륙 동북단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는 지부티·소말리아(동), 수단·남수단(서), 케냐(남), 에리트레아(북)와 국경을 접하고 한반도의 5배에 달하는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임(2021년 기준 약 1억 명).
- 에티오피아 경제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으로 지난 15년간 연평균 10% 수준의 성장을 시현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음. 그러나 코로나19와 장기화되는 내전으로 인하여 2021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20년 만에 최저치인 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두 차례 연기 후 올해 6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번영당(PP)이 의석 436석 중 410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두면서 아비 총리는 연임에 성공함.
- 올해 7월 정부는 티그라이 지역에서 반군(TPLF)과의 내전을 중단하는 일방적 휴전을 선언하였고 이에 대하여 반군은 조건부 수용 입장을 보였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반군 격퇴를 선언하면서 내전 상황은 다시금 악화됨.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3. 12. 23 수교 (북한과는 1975. 6. 5)

주요협정 문화협정(1998), 무역협정(2003),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2011), 무상원조협정(2011), 과학·기술협력협정(2012), 이중과세방지협약(2017), 항공협정(2017)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 출	104,921	92,323	111,239	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 건설광산기계
수 입	54,448	57,224	64,800	기호식품, 산식물, 곡실류, 의류

해외직접투자현황('21.6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21건, 51,943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f
경제성장률	10.2	7.7	9.0	6.1	2.0
소비자물가상승률	10.7	13.8	15.8	20.4	13.1
재정수지/GDP	-3.2	-3.0	-2.5	-2.8	-3.3

자료: EIU

2021년 경제성장률은 15년 만에 최저치인 2% 예상

- 에티오피아는 지난 15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급증*, 예상보다 더딘 백신 공급, 장기화된 티그라이 사태와 주변 지역(아파르, 암하르)으로까지 번진 내전 상황 등은 민간소비와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켰고,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2019년 9.0%에서 2020년 6.1%, 그리고 2021년에는 2.0%(전망치)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이동제한정책(국경 폐쇄, 지역간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금지, 공공장소 모임 금지 등)은 서비스, 상거래, 교통, 건설, 관광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킴.
- * 올해 4월 에티오피아에서 코로나19 감염의 빠른 확산으로 현재(2021.8.8.자 기준) 확진자 수는 동아프리카 국가 중 1위, 아프리카 전체에서는 5위인 상황
- 2022년부터 빠른 경기회복이 예상되지만, 내전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과 이로 인한 투자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은 이전 수준인 연평균 10%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에티오피아-지부티 가스관, 전력망, 철도 및 도로 건설 등 자본 프로젝트의 재개와 코로나19의 점진적 완화로 인한 주력 산업인 관광업과 항공운송산업의 재성장은 국가의 고용과 소득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
- 2020년부터 외국 기업에게도 국내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라이선스가 부여됨에 따라 금융 부문의 확대와 대출 성장이 예상되며, 이는 사업 투자의 증가를 이끌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는 섬유, 의류, 가죽 등 경공업 분야의 경쟁우위 요인으로서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국가 전역에서 운영 중인 산업단지와 함께 2025년까지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의 제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 에티오피아의 월평균 인건비는 69달러로 방글라데시(79달러), 케냐(175달러), 인도(180달러), 베트남(201달러)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¹⁾

< 주요 기관별 에티오피아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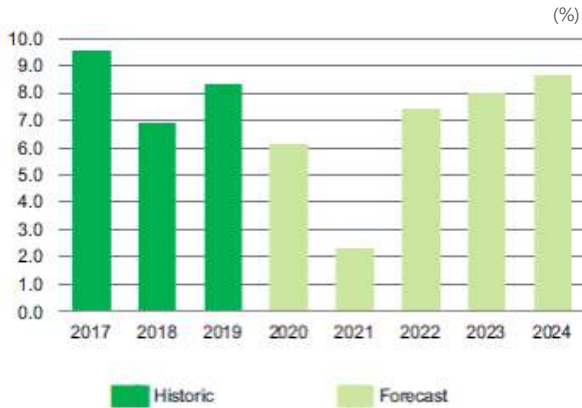
구분	IMF	EIU	IHS Markit	Moody's	Fitch
2021년	2.0	4.0	2.3	2.0	3.1
2022년	8.7	4.6	7.4	8.7	6.9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1) 자료: C. Stefano(2019). "Industrialization on a Knife's Edge: Productivity, Labor Costs and the Rise of Manufacturing in Ethiopia." *World Bank*, p.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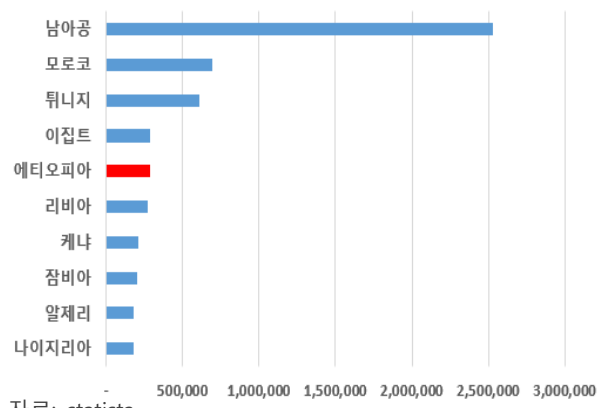
국내경제

에티오피아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자료: IMF

아프리카 지역 코로나 확진자 수 상위 10개국(2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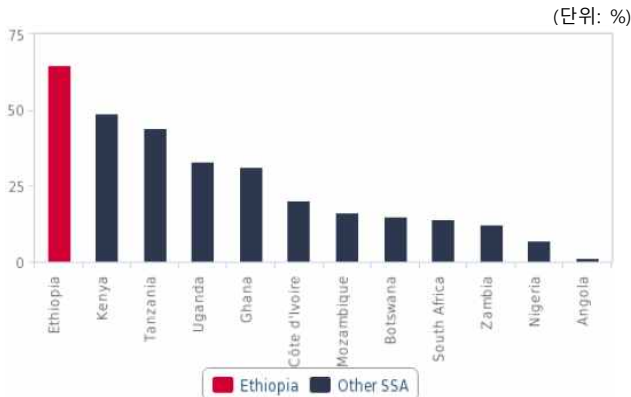


자료: statista

서비스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 에티오피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서비스 부문이 총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로, 서비스 부문은 2019년 에티오피아 총수출의 65%를 차지함.
- 아프리카 항공교통의 허브로서 에티오피아의 운송 및 관광 부문은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각각 78.1%, 15.5%를 차지했으며, 항공운송은 전체 운송 중 99.2%를 차지함(2019년 기준).
-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의 범유행으로 인한 이동 제한과 임시적 국경 폐쇄, 내전 등으로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외국인 수가 2020년 3월 기준 전년 대비 35.5% 감소하면서 서비스 수출액 역시 2019년 48억 4,226만 달러에서 2020년 44억 6,177만 달러로 감소함.
- 아비 총리의 연임 성공으로 향후 정치적 안정과 투자지출의 회복이 예상되는 바, 이는 국내 수요의 증가를 이끌며 경제성장 및 상품 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한편, 정부의 경제 다각화 정책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완화 및 백신 접종률 증가로 인한 국제관광의 재개로 서비스 수출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상품 수입 증가에도 경상수지 적자 폭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기타 SSA 국가와의 총수출 중 서비스 비중 비교



자료: Fitch Solution

에티오피아 서비스 수출 구성



자료: WTO

국내경제

세수 확보의 어려움과 재정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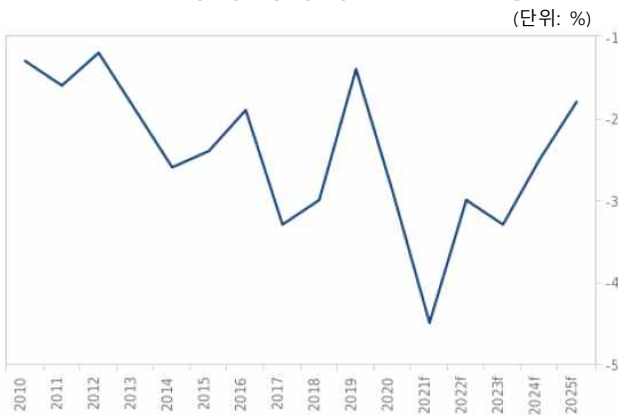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 및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2020년 세수는 16% 감소하였고, 티그라이 사태의 지속으로 인한 안보 비용의 증가와 선거 준비,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부문(2020/21회계년도 보건 부문 예산 46% 증가)과 경제 및 사회적 위기 대응 관련 지출 증가로 인하여 2020/21회계년도 재정적자 폭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Fitch: 2019/20회계년도 2.9% → 2020/21회계년도 4.5% / EIU: 2019/20회계년도 4.7% → 2020/21회계년도 5.8%

- 선거 종료, 코로나19의 완화와 경제회복, 공공 인프라에 대한 정부투자의 점진적 감소, 에티오피아 텔레콤과 에티오피아 항공 등 주요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민간투자의 증가, 정부의 세수 기반 확대 정책 시행과 에티오피아-지부티 파이프라인을 통한 셰일가스의 수출 및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Grand Ethiopia Renaissance Dam: GERD)의 전력 생산은 정부 재정수입의 증가와 재정 건전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여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2021/22회계년도 3.0%에서 2024/25회계년도 1.8%까지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됨(Fitch).
- 반면, GDP 대비 공적채무 비율*은 GERD 댐, 철도 및 발전소 건설 등의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과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외채의 지속적 증가로 당분간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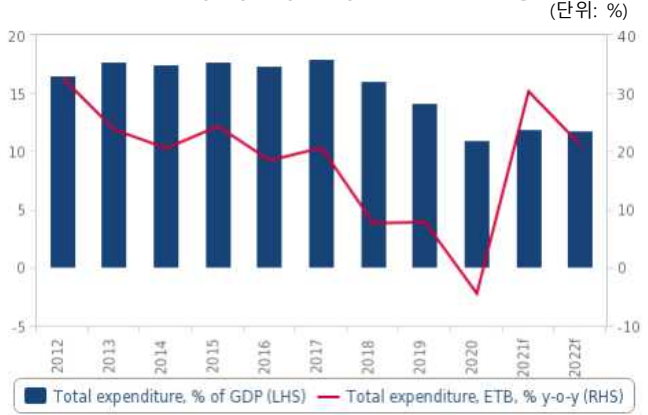
* Fitch: (2019) 62.6%, (2020) 66.5%, (2021) 67.0%, (2022) 68.0% / EIU: (2019) 62.1%, (2020) 66.2%, (2021) 71.4%, (2022) 71.9%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 추이 및 전망



자료: Fitch Solution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 추이 및 전망



자료: Fitch Solution

국내경제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20%대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 기록 중

- 2020년 동아프리카 지역의 대규모 메뚜기 떼 습격, 장기화된 내전과 실항민 증가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급감, 비르(Birr)화 평가절하로 인한 수입품 가격의 인상 등으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5월 19.7%에서 한 달 뒤인 6월에는 24.5%까지 상승하였으며, 2022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에티오피아의 소비자물가지수(CPI) 구성 비중은 식료품비(53%), 주거비(16%), 의복비(7%) 순으로 식료품 가격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큰 영향을 미침.
- 향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 국제가격 상승 폭의 축소, 코로나19와 종족 간 갈등의 완화로 인한 국내 식량 생산량 회복, 정부의 긴축재정 등에 힘입어 2025년 12.5%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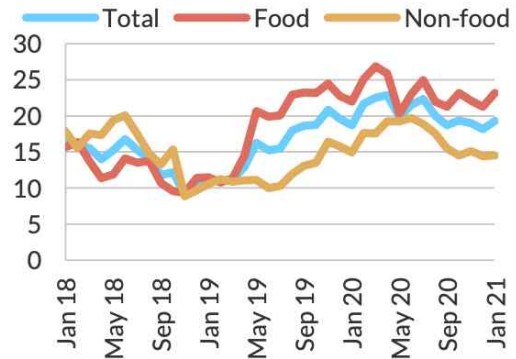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IHS Markit

식료품과 비식료품 가격상승률 변화

(단위: %)



자료: Fitch Ratings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f
경 상 수 지	-5,929	-4,611	-5,025	-2,719	-5,887
경상수지/GDP	-7.7	-5.8	-5.4	-2.8	-6.3
상 품 수 지	-11,206	-11,021	-10,310	-8,509	-9,998
상 품 수 출	3,030	2,705	2,746	3,253	4,197
상 품 수 입	14,236	13,726	13,056	11,762	14,195
외 환 보 유 액	3,022	3,958	2,965	3,022	3,160
총 외 채	24,670	26,812	29,131	30,849	31,817
총외채잔액/GDP	32.1	33.4	31.5	31.9	33.9
D.S.R.	23.3	21.5	29.2	24.0	22.6

자료: IMF, EIU

코로나19와 내전, 원자재 수입 증가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심화

- 에티오피아의 교역 조건은 정부의 자본재 수입억제 정책과 제조업 육성을 위한 노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농산물, 화훼류, 의류·신발·가죽)을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자본재, 석유·가스 등을 수입하여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겪고 있음.
-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커피, 오일시드, 까트)은 부가가치가 낮을 뿐 아니라 농산물 국제가격 변동과 자연재해에 취약한 단점이 있으며, 주요 수입품인 자본재는 정부의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 추진으로 수입수요가 급증하였음.
- 에티오피아는 세계 3위 오일시드(유지작물) 생산 국가이며 티그라이 지역은 에티오피아에서 두 번째로 참깨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국내 참깨 생산량의 31%)이나, 내전과 정세 불안으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에티오피아의 오일시드 수출은 감소하고 오히려 장기간 지속되는 내전으로 식량안보 위기가 증가하면서 농산물 수입이 증가함.

< 에티오피아의 주요 오일시드 생산량 >

(단위: 톤)

작물	2019/20	2020/21	변화량(2020/21)
참깨	280,000	255,000	-25,000
나이저 씨드(Niger seed)	295,000	300,000	5,000
대두	132,000	150,000	18,000
합계	707,000	705,000	-2,000

자료: USDA (원자료: FAS Addis Ababa)

대외거래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 국경 이동 제한, 상품 운송 등의 차질로 에티오피아의 주요 외화 소득원인 항공운송 서비스(에티오피아항공)가 위축되고 주력 상품(화훼류 등)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수입은 증가하면서(2021년 약 21% 증가) 2021년 경상수지 적자 폭은 GDP의 -6%대 초반에 이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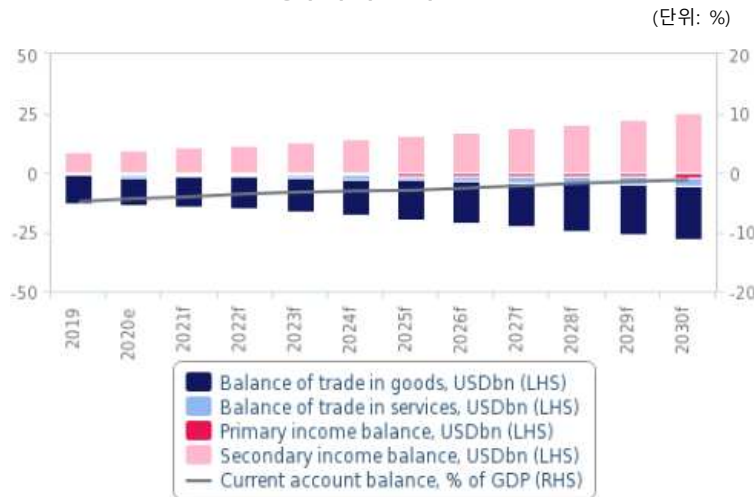
-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로 인한 원자재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2025년까지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력 수출상품인 커피, 오일시드, 화훼 상품의 수출 증가와 관광 부문의 회복, 가스 및 전기 수출, 광물(금, 탄탈륨) 생산 증가 및 금속 원자재 국제가격의 상승에 따라 적자 폭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GDP 대비 경상수지 전망



자료: EIU

경상수지 주요 구성요소



자료: Fitch

외채상환능력

외환보유액 부족은 외채상환 부담 가중의 고질적 요인

- 2021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외채규모는 약 27억 1,070만 달러(단기 1억 6,890만 달러, 중장기 약 25억 4,180만 달러)이며, 연체액은 150만 달러로 연체비율(약 0.06%)은 높지 않은 수준임.
- 그러나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와 외환 부족**을 겪는 가운데 재정수입 기반의 확대보다 대외차입을 통해 추진된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은 대외환경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초래하였음.

* 2020년 기준 1~3위 수출품은 모두 농산물(커피 26.9%, 오일시드 22.1%, 까트 9.3%)으로 전체 상품 수출액의 58.3%를 차지하는 등 비농업 부문의 수출기반은 매우 협소(EIU)

** 외환보유액(백만 달러): (2018) 3,958, (2019) 2,965, (2020) 3,022, (2021^e) 3,160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월): (2018) 2.3, (2019) 1.8, (2020) 2.0, (2021^e) 1.8

- 코로나19와 티그라이 사태로 인한 주요 외화 소득원인 농산물의 생산 및 수출 감소, 건설업, 제조업, 관광업 등 비농업 부문의 프로젝트 지연, 재외국민 송금 감소*, 외국인 투자 부진** 등으로 2020년 말 외환보유액(30.2억 달러)은 월평균 수입액의 2.0개월분으로 외화 부족수준이 심각한 상태임. 그러나 총외채에서 중장기 양허성 공적채무 비중이 높아 단기적 외채상환위험은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평가됨.

* 비거주자 송금액(억 달러, EIU) : (2016) 7.7, (2017) 3.9, (2018) 4.4, (2019) 5.3, (2020^e) 4.8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억 달러, UNCTAD): (2015) 26.3, (2016) 41.4, (2017) 40.2, (2018) 33.1, (2020^e) 25.2

- 외환 부족은 외채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건설자재, 장비 등의 수입자금 결제 지연으로도 이어지면서 건설업, 제조업, 관광업 등 비농업 부문에서 프로젝트 지연과 외국인 투자 부진의 주된 요인이 됨.
- 향후 외환 부족 사태는 고질적인 무역수지 적자 구조와 정부의 인프라 사업 투자에 따른 자본재 수입으로 인하여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외채상환능력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양자·다자 채무상환 유예 및 자금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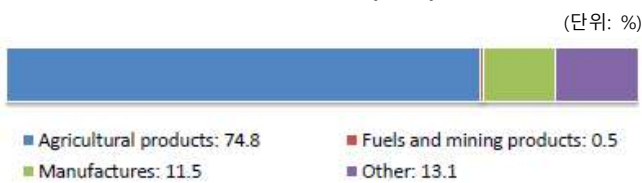
- 코로나19에 따른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최빈국들의 교역 위축, 세계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주 외화 소득원이 급감한 가운데 보건, 의료, 저소득층 지원 등에 필요한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여 외화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우려한 G20, IMF, 세계은행 등은 이 국가들의 채무상환을 일부 유예하고 긴급자금을 지원 중임.
- G20는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최빈국들을 대상으로 2021년 말까지 채무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DSSI)를 통하여 채무상환의 한시적 유예 혜택을 제공 중임.
- IMF는 에티오피아에 대하여 2020년 4월 4억 1,000만 달러의 신속금융제도(Rapid Financing Instrument: RFI) 및 2020년 4월(1,200만 달러)과 10월(633만 달러) 두 차례에 걸쳐 1,833만 달러의 재해억제및구호신탁(Catastrophe Containment and Relief Trust: CCRT)*을 승인함.
 - * IMF는 CCRT를 통하여 2020~2021년 중 총 28개국에 대하여 응급 의료 및 구호 활동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
- 세계은행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하여 IDA를 통해 8,260만 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3월 전력 보급률 향상 프로젝트(5억 달러), 5월 디지털화 프로그램(2억 달러), 중소기업 지원(2억 달러) 등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였음.
- 특히 중국으로부터 차입한 외채가 에티오피아 전체 외채의 50%를 차지하는 만큼(2018년 기준 120억 달러) 중국의 채무상환유예 혜택은 향후 에티오피아의 외채상환능력과 재정 여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에티오피아는 현재 중국에 채무 재조정을 요청한 상태임.
- 중국은 DSSI*, 중아프리카협력포럼(FOCAC), IMF의 재해억제및구호신탁(CCRT)을 통하여 채무면제 및 특별 채무유예 혜택을 제공함.
 - * 공적 양자 신용기관인 중국 수출입은행과 중국국제개발협력기구(CIDCA)는 DSSI를 통하여 아프리카 16개국에 대하여 13억 달러 이상의 채무상환유예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정보가 공개된 아프리카 국가는 잠비아(1억 1,000만 달러)와 케냐(3억 7,800만 달러)임.

구조적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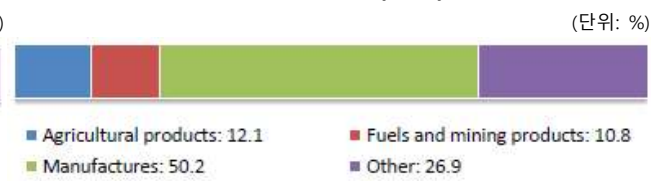
1차 산업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에티오피아 경제는 농산물 수출과 관광업 등의 서비스업, 재외국민 송금 및 해외원조 수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상품수출 구성은 농산물 74.8%, 제조품 11.5%, 연료 및 광물 제품 0.5%, 기타 13.1%로 농산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상품수입 구성은 제조품 50.2%, 농산물 12.1%, 연료 및 광물 제품 10.8%, 기타 26.9%로 제조품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2019년 세계 제조업 경쟁력지수(CIP Index)에서 에티오피아는 152개국 중 145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으며, 제조업 구성 비중은 자원기반(55.7%), 하위기술(21.1%), 중간기술(15.0%), 고기술(8.2%) 순으로 자원기반제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에티오피아의 산업개발 수준이 여전히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줌.
- 농업 부문은 2017년 기준 GDP 대비 34.8%로 서비스업(43.6%)과 비교하여 비중은 크지 않지만, 고용의 약 66%(ILO)를 담당하며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에티오피아 경제는 기상 조건, 농산물 국제가격 등 외부적 요인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음.
 - 주요 수출품인 커피(32.3%)와 오일시드(25.5%)는 2018년 전체 농산물 수출의 57.8%를 차지하였음.

상품 수출 구성(2018)



상품 수입 구성(2018)



전력, 도로 등의 인프라 부족과 취약한 산업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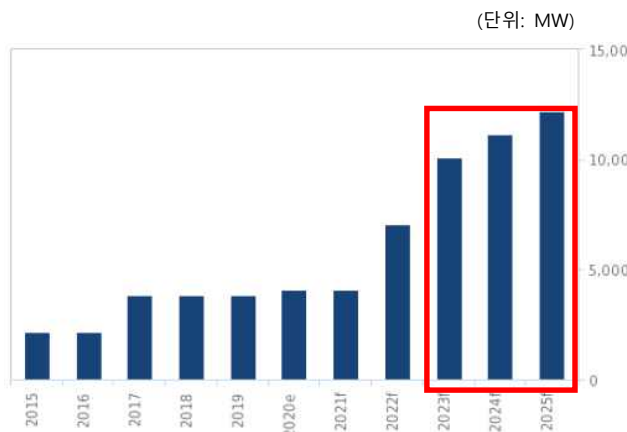
- 도로, 통신, 전력 등 기본 인프라의 부족으로 성장기반이 취약한 점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국내 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은행의 2021년도 기업경영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에티오피아는 전체 190개국 중 전력공급 부문 137위, 국제 무역 부문 156위(종합순위 159위)로 하위권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도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에서는 조사대상 141개국 중 인프라 부문 123위, ICT 채택 부문 137위, 기술 부문 137위(종합순위 126위)로 최하위권에 그쳤음.

성장잠재력

수력 및 기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방식의 다각화를 통한 전력난 해소 추진

-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전력보급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인구 10명 중 7명은 전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전력난 해소, 경제개발, 전력 수출국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나일 강 분지 상류에 6,000MW급 발전용량의 아프리카 최대의 수력발전 댐인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GERD)을 건설 중(7월 기준 공정률 80%)이며, 2023년 완공 예정임.
- 40억 달러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에티오피아 역사상 최대 사업인 GERD 댐은 담수량이 740억 톤으로(한국 최대 소양강 댐의 담수량은 29억 톤) 완공 시 아프리카 최대,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수력발전소가 될 예정이며, 이곳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현재 건설 중인 송전 선로를 통하여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전력난을 겪고 있는 동아프리카(탄자니아, 말라위, 우간다, 케냐) 및 주변국(지부티, 수단 등)에 수출될 예정임.
- 동시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현상의 심화에 따라 전력 생산에서 수력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전체 발전량의 90% 이상)을 탈피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 전력화 프로그램(National Electrification Program: NEP)을 통해 오프그리드(off-grid) 기술을 통한 전력공급 비율을 높이고자 하며(2025년까지 전력공급의 35%), 전력생산 방식의 다각화를 통해 개발가능량 대비 활용도가 낮은 풍력, 지열, 바이오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²⁾

수력발전량 추이 및 전망



자료: Fitch

GERD 댐 위치



자료: BBC

2) 코트라해외시장뉴스. "2021년 에티오피아 전력산업 정보."(2021.9.3).

성장잠재력

< 에티오피아의 에너지별 잠재적 개발가능량 및 활용량 >

에너지자원(단위)	잠재적 개발가능량	활용량	활용도(%)
수력(GW)	45	3.18	~17
태양광(day, kWh/m2)	5.2	-	<1
풍력(GW m/s)	1,350	0.324	<1
지열(GW)	7	0.0073	<1
목재(백만 톤)	1,120	560	50
농업폐기물(백만 톤)	15~20	~6	30
바이오가스(가정)	100~300백만	17,869	<1

자료: Beyene, GE., et al. (2018). "Opportunities for Transition to Clean Household Energy in Ethiopia: Application of the Household Energy Assessment Rapid Tool." WHO, p. 7.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수출 확대 및 제조업 성장 기대

- 에티오피아 정부는 물류 시설의 최적화를 통한 제조업 육성 및 수출 지원과 외국인투자 유치 및 산업 다각화를 목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 현재 총 13개의 산업단지가 에티오피아-지부티 철도를 따라 운영 중임.

* 13개의 산업단지: 의복&직물 4개(Bahir-Dar, Hawassa, Kombolcha, Mekelle), ICT 1개(ICT Park), 의약품 1개(Kilinto), 기타 다분야 7개(Adama, Addis Industry Village, Bole Lemi, Debre Birhan, Dire Dawa, Jimma, Semera)

- 정부가 추진한 인프라 주도 개발은 지난 15년간 연평균 10%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중추 역할을 하였으며, 그중 산업단지 건설이 큰 부분을 차지함.

- 산업지대를 통한 수출액은 2020/21회계년도 첫 9개월 간 6억 1,000만 달러를 돌파하였고 약 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 산업단지 개발은 단기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건설 분야의 성장,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고, 중기적으로는 의복, 가죽 제품, 농산물 가공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함. 외국인투자의 증가는 잔존하는 사회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2021~25년 에티오피아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산업단지 위치



자료: 에티오피아 산업단지개발공사(IPDC)

정책성과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한 자생적 경제개혁 계획 시행 중

- 에티오피아 정부는 2019년 12월 외환 부족, 높은 인플레이션과 외채부담, 민간부문의 자금 조달 능력의 한계 등을 극복하고 공적채무의 지속적 관리 강화,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 감소, 경제·투자·수출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2019년 9월부터 3년간 국내 경제개혁 프로그램인 자생적 경제개혁 계획(Homegrown Economic Reform Program)을 시행 중임.
- 동 계획은 ①거시경제(국제수지 불균형 해소, 인플레이션 관리) 및 금융부문(중개기관 역할 강화, 채무 지속성 보장) 개혁, ②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및 구조 개편, ③핵심 전략 분야의 개혁을 통한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 및 취약성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기업환경 개선 정책과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에티오피아 정부는 동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9년 12월 IMF의 확대금융(EFF)과 확대신용(ECF)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음.

* EFF-ECF는 3년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집행은 반기마다 집행 선결조건 충족 여부를 고려하여 총 7회에 걸쳐 이루어짐. 첫 집행(2019년 12월 IMF 이사회의 프로그램 승인)을 제외한 모든 집행은 성과지표를 달성하고 이전 검토에서 요구된 항목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짐.

2011~20년 동안 진행한 국가성장변화계획(GTP)에 이어 새로운 국가발전계획을 시행 중

- 정부는 2011~20년 동안 1, 2차에 걸쳐 진행된 국가성장변화계획(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GTP)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보완 및 대체한 10년 단위의 새로운 국가발전계획(The Pathway to Prosperity, 2020/21~2029/30)을 발표함.
- 동 계획은 거시경제 불균형(높은 인플레이션, 증가하는 실업률과 채무 부담, 만성적 외환 부족, 열악한 기본 인프라 등)과 대외충격(코로나19, 기후변화, 메뚜기 떼 습격 등)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하여 지속적 고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전략적으로는 ①양질의 성장, ②생산성·경쟁력 개선, ③제도적 변화, ④민간부문이 주도하는 경제, ⑤여성과 아동의 공평한 참여, ⑥기후 탄력적 녹색경제를 목표로 하며, 거시경제적으로는 2030년까지 제조업 포함 산업 부문의 GDP 기여도 확대*, 도시 실업률 9% 미만으로 감소(매년 136만 개의 새로운 직업 창출), 빈곤율 7%까지 감소, 1인당 소득 2,220달러 달성, 연평균 성장률 10.2% 달성 등을 목표로 함.
- 동 계획의 중점 분야는 ①생산적 분야(농업, 제조업, 광업), ②서비스 분야(관광), ③기반 분야(에너지, 교통, 금융, 혁신 및 기술, 도시 개발, 관개시설, 인적 자원 개발)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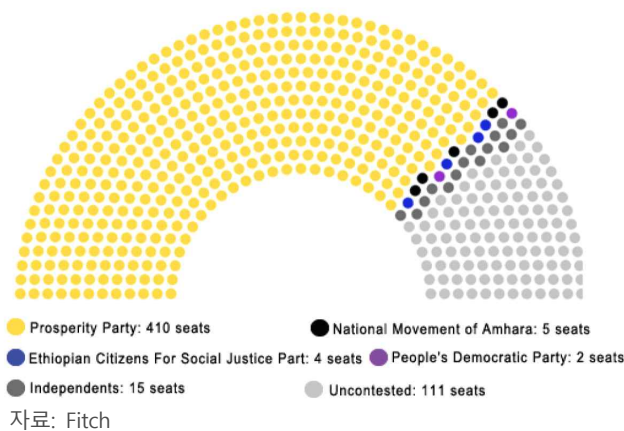
* 부문별 GDP 기여도 확대 계획: 2018/19년(현재): 농업 32.8%, 광공업 27.6%, 제조업 6.8%, 서비스업 39.4%
→ 2030년(목표): 농업 22.0%, 광공업 35.9%, 제조업 17.2%, 서비스업 42.1%

정치안정

올해 6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당인 번영당(PP)의 압승으로 아비 총리는 연임에 성공

-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지난 6월 21일 치러진 총선에서 에티오피아의 여당인 번영당(Prosperity Party: PP)이 전체 436석 중 410석을 차지함에 따라 2018년부터 총리직을 맡은 아비 아머드(Abiy Ahmed Ali) 총리는 연임에 성공함.
- 그러나 치안 불안, 종족 분쟁, 준비 부족 등으로 전체 선거구(547개)의 1/5이 넘는 64개 선거구에서 투표가 실시되지 못함에 따라 선거 결과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며 부정선거 의혹도 있음.

정당별 의석 획득 현황



티그라이(Tigray) 지역



정부는 티그라이 반군에 대한 일방적 휴전을 선언하였으나, 내전 상황은 점차 악화

-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은 총선 기간 공격을 강화하여 티그라이 주의 주도인 메켈레와 주요 도시를 장악하였고, 이에 정부는 인도적 목적과 농번기를 이유로 올해 6월 말 일방적 휴전을 선언하며 메켈레에 주둔하던 정부군과 에리트레아군을 철수함. 반군은 조건부 수용 입장을 보였으나 아비 총리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반군 격퇴를 선언하면서 휴전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고 이로 인해 티그라이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불안정과 민족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현재 분쟁은 티그라이 인근 암하라(Amhara)와 아파르(Afar) 지역까지 확산되었으며, 반군은 암하라 주 유적 도시인 랄리벨라를 점령하였음. 이에 아비 총리는 티그라이 반군에 맞서 국민들의 참전을 촉구하였는데, 2019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총리의 이러한 행동은 티그라이 사태의 야기와 자국내 학살 주도 관련 비판에 더해져 노벨 평화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불러일으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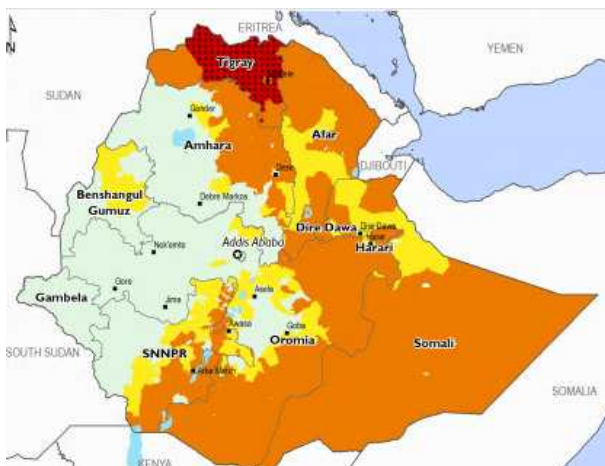
*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 암하라 민주당(ADP), 오로모 민주당(ODP), 남부 에티오피아 인민민주운동(SEPDM)의 4개 정당으로 구성되어 1991년부터 집권해온 에티오피아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은 2019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아비 총리와 ODP 핵심 간부들의 주도로 EPRDF 내 3개 당(ODP, ADP, SEPDM)과 기타 5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번영당(PP)을 창당하였으나, TPLF는 EPRDF에서 탈당하고 번영당에 합류하지 않으며 2020년 9월 독자적인 지방의회 선거를 진행함. 이에 아비 총리의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를 불법선거로 규정하였고 11월 TPLF가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 정부군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TPLF를 향한 군사작전을 명령하면서 내전이 시작됨.

사회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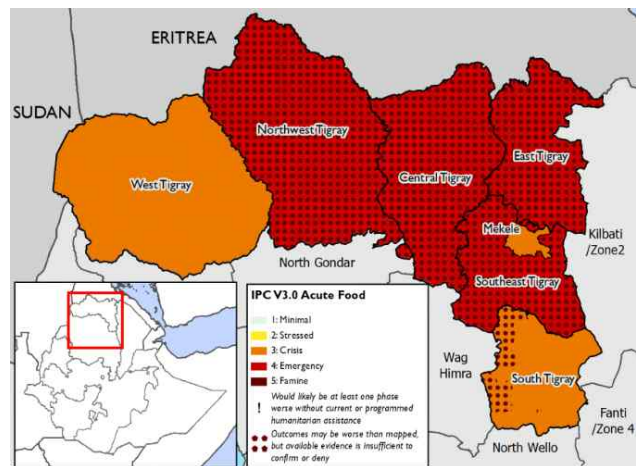
티그라이 사태로 인한 북부 지역의 심각한 식량안보 상황

- UN의 통합 식량안보 단계 분류(IPC)에 따르면 올해 5~6월 기준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티그라이 지역과 인근 아파르, 암하라 지역) 주민 약 900만 명 중 61%(약 550만 명)는 심각한 식량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 중 35만 명 이상은 재난으로 간주되는 기근(5단계) 상태에 처해있는데, 이는 2011년 소말리아 기근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임.
- 티그라이 지역은 가장 심각한 식량위기 지역으로 전체 약 400만 명의 인구 중 48%는 식량 위기(3단계), 43%는 비상사태(4단계), 9%는 기근(5단계) 상태이며, 기근 상태인 인구 중 절반 이상은 어린이임.
- 이러한 식량안보 상황은 내전으로 인한 실항민 발생과 이로 인한 작물 수확 감소 및 생계 수단의 손실, 인도주의적 접근의 어려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내전이 진행 중인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에서는 지난 10개월간 170만 명의 실항민이 발생하였고, 그중 165만 명이 티그라이 지역에서 발생함.
- 올해 9월에는 상황이 악화되어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 인구 약 600만 명 중 74%(약 440만 명)가 식량위기 또는 더 심각한 상황을 마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중 약 42만 명은 5단계 수준인 재난 상태에 처할 것으로 예상됨.

에티오피아 식량안보 상황(2021년 6~9월)



티그라이 지역 식량안보 상황(2021년 7~9월)



*통합 식량안보 단계 분류(IPC)

1: Minimal 2: Stressed 3: Crisis 4: Emergency 5: Famine

자료: FEWS NET

사회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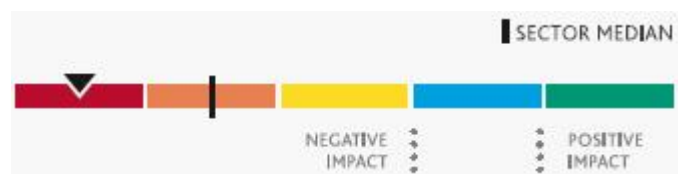
Moody's는 에티오피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를 5등급(Very Highly Negative)으로 평가

- Moody's는 에티오피아의 높은 부채와 낮은 부(wealth)의 수준이 사회적 회복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점과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에 크게 노출된 점을 감안하여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5등급(Very 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년 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8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5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0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65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높은 중요성과 주 에너지원인 수력발전의 강우량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하여 가뭄이 반복될 경우 농업과 에너지 부문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환경 영향은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높은 소득 불평등과 빈곤, 청년실업률이 사회적 불만을 가중시킬 소지가 다분함에 따라 사회 영향은 "매우 부정적"(5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몇몇 공기업들에서 나타나는 취약한 거버넌스와 이로 인한 높은 부채 수준은 정부의 신용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아프리카의 봄"(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잦은 정치·사회적 불안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을 미루어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됨.

에티오피아의 ESG 신용영향평가점수



자료: Moody's

에티오피아의 ESG 요소별 점수



자료: Moody's

국제관계

티그라이 내전의 장기화로 인한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

- 티그라이 내전 중 발생하는 인권유린 문제와 인도적 지원의 제한으로 인해 미국과 EU는 에티오피아 및 에리트레아를 대상으로 제재를 발표함.
 - 미국은 지난 5월 23일 에티오피아 및 에리트레아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 및 재정 지원 제한을 골자로 제재를 발표하였으며, 3개월 뒤인 8월 23일에는 내전 중 자행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에리트레아군(EDF) 참모총장인 Filipos Woldeyohannes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며 티그라이 지역에 주둔 중인 에리트레아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함.
 - EU 역시 지난 3월 22일 티그라이 지역에서 자행된 살인, 고문, 성폭행, 인신매매 등의 인권유린 행위와 관련하여 에리트레아를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며 에리트레아 국가정보원을 블랙리스트에 등록함.
- 티그라이 인구 중 90%(약 520만 명)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인도적 지원을 위한 외부의 접근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임.
 - 현재 필요 원조량의 약 10% 만이 티그라이 지역에 도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티그라이 반군이 국제 구호품 창고를 습격한 사건이 발생함.
 - 미국과 EU는 티그라이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완전한 허용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EU는 에티오피아에 대한 880만 유로의 개발자금 지원을 중단한 바 있음.

청나일 유역 수력발전소 건설로 이집트·수단 등 주변국과 갈등 지속

- 2011년부터 건설 중인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GERD)은 주변국과의 협의 없이 에티오피아의 독단적인 건설로 인하여 이집트, 수단 등 강 하류에 위치한 주변국들과 나일 강 수자원 활용 및 주권 침해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이집트는 물 수요의 90%를 나일 강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자국민의 수원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담수 개시 및 댐 가동에 강력히 반대해옴.
 - 작년 2월 미국 등의 중재로 에티오피아·이집트·수단의 3자 회담이 추진되었으나, 에티오피아 정부가 미국이 이집트 편을 든다고 주장하며 동 회담에 불참을 선언하여 협상이 결렬되었음. 올해 1월 아프리카연합(AU)의 중재로 협상이 재개되었으나, 에티오피아가 3국 회담 합의와 관계없이 2차 담수를 진행할 것임을 통보하면서 담수와 운영 시기 등과 관련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은 또다시 결렬됨.
 - 에티오피아는 지난 7월 2차 담수(135억 톤)를 마쳤는데, 2차 담수 시작 후 알-다임 댐에서 매일 수위 측정치를 조사한 결과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에서 블루 나일 강 하류인 수단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은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외채상환태도

파리클럽으로부터 1992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채무 리스케줄링 및 공적채무 탕감 수혜

- 에티오피아는 파리클럽으로부터 6차례(1992~2020년)에 걸쳐 리스케줄링 및 외채탕감을 받아 현재 상환 중임. 한편, 2020년 말 기준 에티오피아의 파리클럽 회원국 및 관련 기관 앞 채무액은 ODA 채무액 7억 1,000만 달러, 그 외 채무액 2억 1,800만 달러로 총 9억 2,800만 달러임.

G20으로부터 채무 리스케줄링 수혜

- G20은 2020년 4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국의 급박한 유동성 수요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채무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SSI)*를 발족하여 모든 공적 양자대출을 대상으로 원리금 상환 기간을 2020년 12월 말까지 연장했으며, 최근 해당 기간을 2021년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함. 이에 따라 DSSI 수혜국인 에티오피아는 단기상환 부담이 완화되면서 재정여력 확보가 가능해짐.

* G20의 채무유예 대상국은 최빈국(73개)으로 2020년 5월 1일부터 총 46개국, 약 57억 달러(한화 약 6조 3,300억 원) 부채에 대하여 혜택을 제공함.

파리클럽의 에티오피아 채무재조정 내역

채무재조정일	채무재조정 대상액 및 조건	채권국	상환여부
2020. 6. 9	[대상금액: 20.4.30자 기준 연체금 + 2020.5.1.~2021.6.30. 상환 원리금] [총 14.87억 달러]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상환중
2004. 5.13	· 탕감: 12.96억 달러(HIPC Initiative 졸업에 의거) · 리스케줄링: 1.91억 달러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러시아, 스웨덴, 영국, 미국	상환중
2002. 4.18	[총 800만 달러] · 800만 달러 전체 탕감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스웨덴, 영국, 미국	상환중
2001. 4. 5	[총 4.32억 달러(탕감 1.3억 달러, 리스케줄링 3.02억 달러)] · non-ODA: 탕감(48.6%)+리스케줄링[23년(거치6년)] · ODA: 리스케줄링[40년(거치 16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스웨덴, 영국, 미국	상환중
1997. 1.24	[총 1.83억 달러] · non-ODA: 탕감(67%)+리스케줄링[23년(거치6년)] · ODA: 리스케줄링[40년(거치 16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미국	상환중
1992.12.16	[총 4.41억 달러] · non-ODA: 탕감(50%)+리스케줄링[23년(거치6년)] · ODA: 리스케줄링[30년(거치 12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	상환중

자료: 파리클럽

IMF·세계은행의 HIPC 및 MDRI를 통한 외채탕감 수혜

- 에티오피아는 IMF와 세계은행의 고채무빈국 이니셔티브(HIPC) 및 다자채무구제 프로그램(MDRI)을 통하여 IMF·WB, AfDB로부터 2018년 8월 말 기준 각각 32억 8,000만 달러 및 31억 4,000만 달러의 외채를 탕감받았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2021.06)	7등급(2020.06)
Moody's	Caa1 (2021.05)	B2 (2021.03)
Fitch	CCC (2021.02)	B (2020.06)

국제신용평가 3사는 2021년 에티오피아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

- OECD는 에티오피아에 대하여 최하 등급인 7등급을 유지하고 있음(2021.6월 평가).
 - Moody's와 Fitch는 에티오피아가 G20의 DSSI를 통하여 올해 말까지 채무상환 유예 혜택을 받은 데 이어, DSSI 종료 후 채무 재조정을 통한 저소득국 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원칙(Common Framework: CF)의 참여 의사*를 밝혀 채무불이행 위험을 높이며 민간부문 채권자들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킴에 따라 에티오피아에 대한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함.
- * 에티오피아 정부는 올해 1월 에티오피아가 직면한 부채구조의 취약성을 경감하고 현재 IMF가 위험 수준으로 평가한 외채부담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G20 기본원칙을 통한 국가채무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발표함.
- Moody's는 지난해 5월 메뚜기 떼 습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에티오피아 경제가 전방위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을 고려하여 금년 3월 신용등급을 B1에서 B2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금년 5월 Caa1으로 재차 하향 조정하였음.

- 에티오피아 경제는 국가성장변화계획(GTP)의 시행에 따른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으로 지난 15년간 연평균 약 10%의 고성장을 지속해왔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관광 및 항공운송 부문의 침체와 수출 정체, 티그라이 내전의 장기화로 인한 민간소비 및 경제활동의 위축 등으로 2021년 성장률은 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향후 산업단지 개발 및 자본 프로젝트 재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민간투자의 증가와 가스 및 전력 생산에 힘입어 성장률은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아비 총리의 연임 성공으로 당분간 정치적 안정은 예상되지만, 현재 주변 지역으로까지 번진 장기화된 내전과 이로 인한 심각한 식량안보 상황 및 서방 국가와의 관계 악화, 그리고 댐 건설로 인한 이집트 및 수단과의 갈등 등의 문제가 남아있음.
- 최근 G20이 DSSI를 통해 공적 대출을 대상으로 한 채무상환유예 기간을 올 연말까지 추가 연장함에 따라 정부의 단기 재정 여력 확보가 가능해짐. 그러나 코로나19와 내전,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인하여 20%대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만성적 쌍둥이 적자, 외환보유액 부족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Moody's와 Fitch는 에티오피아의 G20 기본원칙(CF) 참여로 향후 민간부문 채권자들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년 들어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하였음.